



제3회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13일 오전 11시에 전주교육지원청 2층 협의회실에서 '2020년 제3회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 지역 공동체 구축 포럼' 등 전주 교육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많은 민관협력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주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민관협력위원회는 9월 1일 교육거버넌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며, 참석 위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교육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부량면 새마을부녀회, 홀몸어르신께 곰탕세트 전달

김계 부량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광순)는 지난 13일 관내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사랑의 사골곰탕 1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기나긴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홀몸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불볕더위에 대비해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뜻에서 마련되었고 부녀회원 26명이 참여하여 직접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사골곰탕100세트는 부녀회가 한 해 동안 수거한 폐농약병을 수거 판매한 판매금 수익금으로 마련해 더욱 나눔의 의미가 컸다. 김홍기 부량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활동에 모두가 행복한 부량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계=곽노태기자

“수해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전(前)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수해복구 지원 성금 200만원 전주시에 기탁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온 전임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전주시는 13일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던 전임 위원장들의 모임인 전(前)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회장 양순기)가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일상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복구 성금은 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된 것으로, 재해구호 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양순기 전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은 "이번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수해복구 지원에 관심을 가져 수해 복구 작업이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주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스포츠클럽-신흥중, 스포츠교육지원협약

(사)전주비전스포츠클럽(회장 박창열)은 13일 전주신흥중학교(교장 이천기)와 학생 건강 증진을 목표로 스포츠교육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은 전주신흥중학교에 지도자를 파견하여 학생들을 위한 축구수업 및 축구 대회 참가등을 지원하고, 전주신흥중학교는 공간 및 용품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전주비전스포츠클럽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주춤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있으며,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개인위생교육과 방역체크 등 방역관련 지침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신흥중학교에서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생들의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호우피해 남원 농가 돕기

전북생물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대 마을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피해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한 20여명의 직원은 마을 길에 쌓인 나뭇가지들을 제거하고 토사를 걷어내며 마을 진입로 청소 등을 지원하였고, 가재도구 정리, 찢어진 비닐 하우스 내 작물 처리 등 복구 작업에 힘썼다. 이날 남원 농가는 "생각보다 큰 폭우 피해에 복구 작업을 할 일손이 부족하여 시름이 이민저만 아니었는데, 봉사자들의 손길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하였다. /김윤상기자

남원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봉사의 손길과 기부 잇따라

남원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며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전북 김제시에서 액체여과기 생산업체인 한삼코라를 운영하는 남원 출신 조민수 대표가 남원시 수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 일천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금동의 성모의원(대표 이재진)과 남명산업개발에서 각각 성금 오백만원을, 전북공인회계사협회(회장 권휘일)에서 일백만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재해구호 물품지원과 수

해지역 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이외에 익명의 기부자가 생수 9,000box(3천만원 상당)를, 남원 롯데마트에서 생수 300box를, 서울우유 전북지점에서 우유 및 음료 400box(4,800개)를 기부했다. 이화주 남원시장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 한 시에 도움을 주시는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개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피해상황을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동북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 010-9645-4113 | 중앙지사 010-9088-6874 | 남원지사 632-3996 | 고창지사 563-6999 |
| 삼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866 | 김제지사 545-1227 | 임실지사 010-9642-2725 |
| 서신지사 272-9417 | 송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6865 | 진안지사 433-3004 |
| 호지지사 010-8645-9835 | 팔복지사 253-6844 | 남원지사 632-0395 | 정읍지사 536-3767 |
| | 군산지사 010-6789-0038 | 순창지사 663-0444 | 장수지사 010-3882-6157 |
| | 익산지사 658-98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53 |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수재민 돕기 성금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전북지역내 수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재의 연금으로 성금 5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윤방섭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내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디펜스·마스크상사, 대표 백구면에 성금 1억원 기탁

전주시에 위치한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인 디펜스·마스크상사(이후수 대표)가 고향인 백구면에 이웃돕기성금 1억원을 기탁하고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여 전북에서 67번째 회원이 되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2007년 설립된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구현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발굴 캠페인으로,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원자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6월에는 자녀인 이문희씨가 먼저 1억원을 기부하여 66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바 있어, 부자가 함께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계=곽노태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